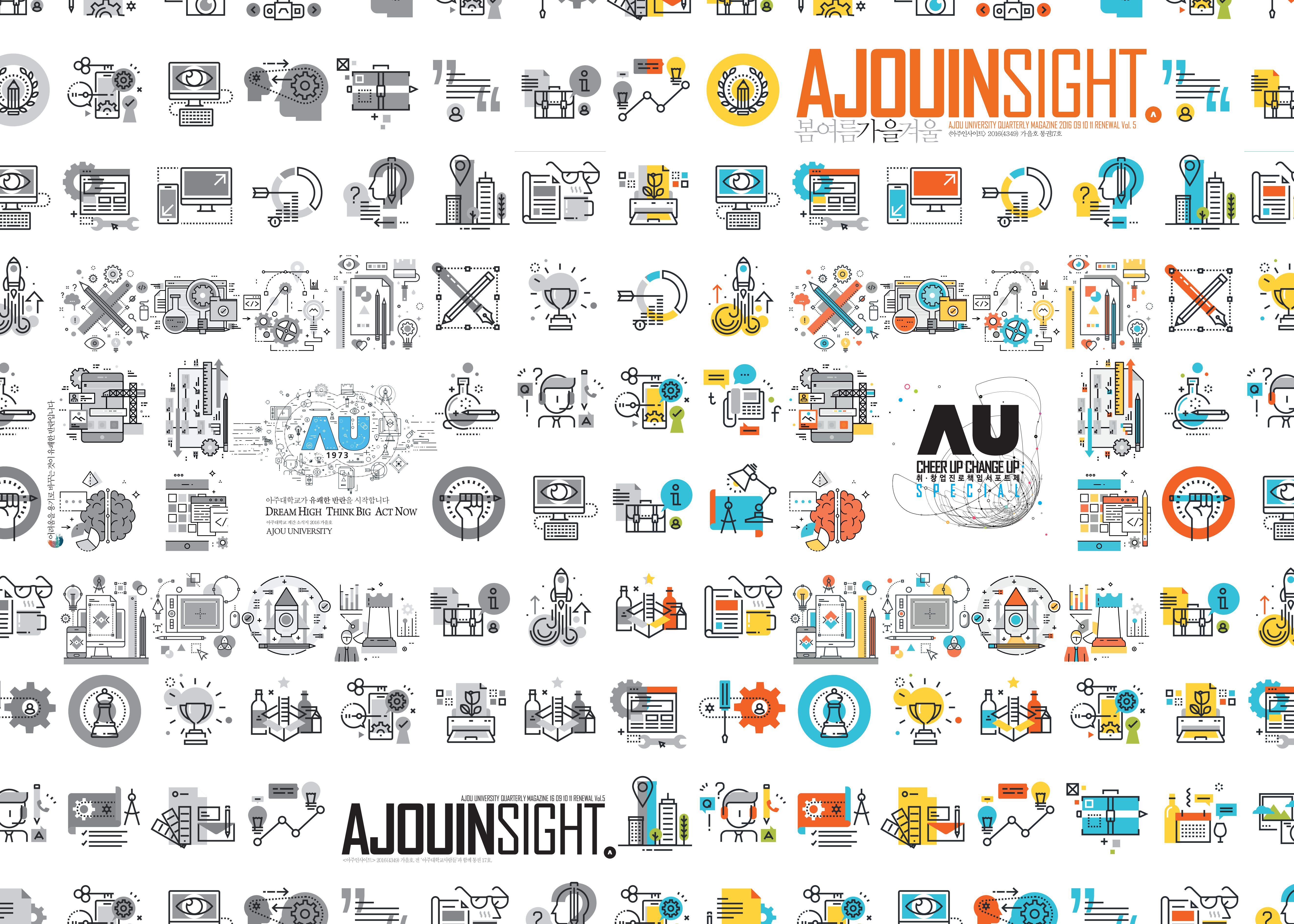




아름다운 용기도 바꾸는 것이 유쾌한 만반입니다

아주대학교가 유쾌한 만반을 시작합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학교 제간 소식지 2016 가을호
AJOU UNIVERSITY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16 09 10 11 RENEWAL Vol.5
AJOUINSIGHT
<아주인사이트> 2016(4349) 가을호 전 '아주대학교사람들'과 함께 동권 17호

04

05

06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 특집**

교수 기고

장중순
부처 같은 '물' 속에선
'송곳'도 드러나지 않는다.권용진
인간 중심 사고 능력 더 중요해진다.김주후
'직업'이 아니라 '업적'이다.

08

09

특집 인터뷰김범수
열심히 축구 연습했는데,
들어선 곳이 야구장이라면?

12

13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
프로그램 소개**김동연 총장
발의 인터뷰

07

**'유쾌한멘토랑'
모집 안내**

10

11

특집 인터뷰김영미
스팩은 별레같은 것

14

15

국·내외 리더에게 듣다*Johnson-Johnson*'분명한 의견' 말하는 '분명한 자기'
있어야*NASA*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로 날게 한다

CNN

'남의 생각대로의 능력' 더 이상 안통해

CS

이 세상 그 누구도 안 해 본 일을

인독

현장에 대한 각오, 기업도 개인도 키워

*임프*언마나 좋은 기업인가 보다 얼마나
나와 맞는가를

16

17

**아주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 모집 광고**

20

21

**"AFTER YOU"
2016여름
글로벌 캠퍼스
REPORT 2**

24

25

**1st 파란학기제'
REPORT 1
첫 번째 앞을
개고 나온다**

28

해외 동문 메시지
김정민
홍콩폴리텍대학교 교수

30

내 정신의 고향에서
민성진 동문
아주 소박하고
아주 넉넉했던

32

33

연구 뉴스

38

DONATION

18

19

**"AFTER YOU"
2016여름
글로벌 캠퍼스
REPORT 1**

22

23

**"AFTER YOU"
2016여름
글로벌 캠퍼스
REPORT 3**
젊음의 Turning Point

26

27

**1st 파란학기제'
REPORT 2
도전하는 그 순간,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다.**

29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김경일 교수
우리가 입을열어야
하는 이유

31

**관역외상센터
개소**

34

35

36

37

뉴스

Cheer Up Change Up

특

집

아

주

대

학

교

취

창

업

진

로

책

임

서

포

트

제

S

P

E

C

I

A

L

R

E

P

O

R

T

a word of editor's

섬뜩함의 계곡 마감은 언제나 야근을 부른다. 번잡한 강남 같지 않게 편집사의 뒷골목은 고즈넉하다. (사실은 고관대작들 동네다.) 골목 사거리에서 고급 수입차와 그자로 마주쳤다. 서로가 아주 잠깐 멈칫 했다. 반사다. 사람이 안 탄 자동차가 상용화 되어 사람이 양보 받을까. 안 그래도 '4차산업혁명의 충격'으로 인간의 직장과 직업의 위기 소리가 높다. '스카이가 아니라 하데, 옥데(하버드, 옥스퍼드)를 나와도 평생직장은 없다', 상상력인가가 문제다. 정지와 희망이 없는 체계에서의 상상력(능력)은 섬뜩한 역사를 보여줬다. 생존에 대한 젊은이들의 고민을, 노동적 학업에 묶인 청소년들의 고통을 바꾼 상상력(도전)의 요구는 서늘한 포기들 학교는 이 '배려의 상상력'으로 '파란학기제'와 '에프터유', 'SOS' 프로그램 등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제 'Cheer Up, Change Up' 캠페인을 설계하고, 실행하러 준비 중이다. 이번 호 특집 참여 인사들은 '하나모습과 기능이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친밀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급락하는'이 발전된 줄 알았던 사회에서 발견되지 말아야 한다. 부유하고 번듯한 동네의 골목에서부터 AI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자동차가 사람

적으로 걸음을 멈췄고, 당연한 듯 자동차가 먼저 지나갔다. 다음 골목 사거리. 늦은 학원을 마친 귀가 길의 중학생인 듯한 소년도 대형 세단과 마주친다. 역시 '사람'은 양보했고, '자동차'가 양보 받았다. 요즘 고급차는 사실상 로봇이다. AI급 장치로 정교하 "10~20년 내 현재의 직업 50% 가까이 소멸"이란다. 학교는 무얼 가르쳐야 할까? 학생에게 어떤 능력을 키워 미래와 맞서보라 할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상상력' 같다. 인류사를 조금만 뒤돌아 봐도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다. 결국 '어떻게'와 '어떤'을 드러낸다. 한국의 객관적 여러 수치들이 그 주관적 실감들을 존중하라 명하고 있다. "송자들이 폐자들에게도 신경 쓰는 혁신이 필요하다." 얼마 전 우리 대학교를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말이다. '배려'가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다. 우리 하나 해 나가기를 '어떻게?'의 답인 듯 입 모은다. 젊은 아주인들도 우리 프로그램들의 '배려'와 '한걸음한걸음' 정신을 먼저 세웠으면 싶다. 강 건너인 듯, 코앞에 온 듯한 '미래' 세계다. 일찍이 로봇 선진국 일본의 어느 공학자가 명명한 '섬뜩함의 계곡(로봇의에게 양보하는 풍경이 당연해져야겠다. ●



무쇠같은 ‘틀’ 속에선 ‘송곳’도 드러나지 않는다

- 평생직업과 ‘ㄴ’자형 인재

‘평생직업’도 본래 경영의 산물
‘멀티 잡’ 필요성 기성 세대도 마찬가지

내가 모르던 내 안의 나를
찾는 파란(破卵)을

넓게 펼친 후, 깊이 파면
새 시대도 두려워할 것만은 아나



장중순 대학원장 산업공학과

퇴근 후에는 오로지 충실한 Youtuber로 살고 있는 나는 광활한 우주공간에서 새로운 별을 찾는 마음으로 오늘도 인터넷 사방에 나선다. 최근에 발견한 새로운 기성은 빅이벤트 전갈자리 안타레스A보다 훨씬 큰 이 별은 ‘명예를 감수히보다 10배 더 잘 부르는 특기이며, 작사·작곡은 물론 오페라 아리아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타고난’발성기관이 워낙 탁월한 것도 있었지만 노력에 또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곤 한다. 그녀가 부른 벨라판타지아를 되새김하면서 이 팔색조는 100살이 넘어서도 노래로 남을 즐겁게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정년퇴임이 싱글로 접어들었다. 아내에게 벌써 그리 되었다고 하면, 아내는 퇴임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빨리 정하라고 재촉이다. 취업이 전쟁인 시대에 젊은 독자들에게 아주 많은 미안함이 있지만,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퇴임하고도 또 일을 하라고? 돈을 벌려고 해서 그렇지, 봉사차원에서 찾아보면 사회에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다른 선배들처럼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대학을 찾아볼까? 이렇기 거대하면 처음부터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할 걸 그랬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61.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3년 81.9세로 43년 만에 20세가 늘었다고 한다. 이 속도로면 지금 20살인 대학생이 환갑이 되는 2056년에는 평균수명이 100세 이상 될 것이 틀림없다. ‘100세 시대’라는 게 그냥 구호인줄 알았는데 정말 곧 오기가 보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취업연령은 27.5세이며, 평균 52.6살에 은퇴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 태어나 5~6년은 소위 무위도식(?)하다가, 20년 정도는 공부하느라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는데, 공부하며 쌓은 내공을 가지고 직장에서 25년간 정도 일하다가 은퇴해서 30 여년 간을 삼시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 직장이란 말이 있었다.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룬던 이념 중 가장 부러웠던 단어, 평생 직장! 도요타 자동차의 노블이 있도록 한 창업자인 도요다 기이치로는 1950년의 경영학회로 졸업원을 했고했다는 스트레스 탓에 1952년 비교적 젊은 나이인 58세에 뇌출혈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그 후 도요타는 어떠한 경우라도 졸업원을 했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 평생 직장은 이렇게 애민(愛民)사상(?)이 투철한 오야보들의 경영철학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혈연(血緣)보다 지연(地緣)이 우선이라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려고 하면 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의심하는 나라, 일본 민중의 소신이기도 하다. 이런 일본에서도 오즈옴은 미국의 세태를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능력이 우수한 인재일수록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또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고객연봉을 전혀 죄의식 없이(?) 받아 가는 것이 당연시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건설한 사회적 도구가 있어 그렇지, 말해가는 크라이슬러에서도 고객의 연봉을 챙겼던 아이야코가 같은 기업인이 많고 또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중업원들의 나라가 미국이다. 평생 직장이란 단어는 찾을 수도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평생 직장은 사라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또는 명예퇴직 후 제2의 직업을 탐색하고 있다.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했으며, 멀티 잡도 주목 받고 있다. 이제 각 개인은 시대가 길을 열어주기보다 바리키보다 꾸준히 직업 경쟁력을 키워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좌우할 선택을 해야 한다. 10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우선 나에게 평생 직장이 있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 부모님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한탄만 하지는 말자.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보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평생 직장이 있을 수 있다. 내가 Youtube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평생 직장이 어려우면 앞으로 100세까지 한 가지 일만 하고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나에게도 분명히 박가처럼, 부모님께 물려 받은 재능과 소질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내 안의 나를 찾아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느냐? 이는 결국 같은 말이다. 두가운 쇠 틀에 박힌 생활을 하면 아무리 날카로운 송곳도 드러날 수는 없다. 가끔은 틀을 깨보기도 하자. 아주대에서는 이를 파란(破卵)이라고 한다. 아, 그런 인생을 넓혀 보자. 여러 사람과 생활하다 보면 다른 이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저절로 알게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취미를 길러 보기도 하자. 요즘은 취미를 직업으로 삼은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평생 직업의 길로 반쯤은 접어들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독일 레비튼 박사가 아이기 한대로 특정 분야에만 시간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된다. 그 정도 시간이면 인간의 뇌가 적응, 그 어떤 사람이라도 천재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되려면 한 가지에만 전념하라고 했다. 필자는 이를 칠(?)형 전문가로 부르기로 한다. 칠형 인재는 특정 분야 또는 한 시대에는 참으로 유용하나, 한번 컷셋 같은 곳에 박히면 찢기)도 힘들다. 바늘이 되려면 아주 굵고 긴 침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잘 눈에 띄고 널리 쓰이지 않겠는가? 요즘 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칠형 인재보다 T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 넓게 공부하되 어느 특정한 분야에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ㄴ’자형 인재라고 하고 싶다. 위대한 발명가나 혁신은 융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폭넓게 공부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한가지 일만 하며 평생을 영위하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말의 유는 낙관하다는 뜻의 ‘확’도 있지만 ‘아리석’을 우(雨), 비 우(雨)도 있다. 잘 되면 한없이 잘 되지 만, 아리석은 선택을 하면 빚속을 걸어야 한다. 이런 리스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ㄴ’자형 인재가 되자. 아니 다리가 두 개뿐인 게 아니라 지체와 같이 여러 개인 그런 인재가 되자. 유는 있을 유(有) 죽을 어 보이고, 버들 유(柳) 버들과 같은 유연함으로 ‘낙낙할 유(有)’ 여유가 넘칠 수 있다. 여차피 대학 졸업 후 70년 이상을 살아야 하니까, 길게 보고 계속 전문분야를 만들어 가보자. 한 분야에서 10년 또는 20년씩, 계속 바꾸어 보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학자 토마스 프라이는 “100세 시대에는 직업을 여러 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대학이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기회를 통해 평생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다만 특커인 빅이벤이 오페라 아리아를 잘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고한 인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 ‘청춘’들에게 축복 있겠네! ●

인공지능의 등장과 무인화, 자동화, IC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었으며 가까운 미래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한 예로 무인 트럭이 등장하면 미국에서만 약 100만명에 이르는 트럭 드라이버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에는 고가의 장거리 운송 트럭을 소유하고 프리랜서처럼 위탁 운송을 하거나 회사에 소속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드라이버들이 약 1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의 대륙 횡단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적고 차선이 적산이라 무인 트럭을 운용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무인 트럭이 등장한다면 물류회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우선 운전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이 절감된다. 더불어 운전자 탑승 공간과 각종 편의장치를 제외하면 무인 트럭은 아주 작고 가벼운 형태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주행모드를 연료 소비 최소화에만 맞추고 하루 24시간 운행을 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대두한다. 무인 트럭을 24시간 활용하면 경제적 이점이 크지만 그에 따른 장비 안전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트럭의 사전 정비와 센서 기반 상태 모니터링, 사고 예방, 원격 관제 및 새로운 운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된다.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한 보다 정교한 운영체제도 필요해지고, 기존의 고속도로에서 무인 트럭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프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수의 트럭 드라이버들은 사라지더라도, 무인 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사실 대륙횡단 트럭 드라이버들은 장시간 운전에만 따른 비만 등 건강 문제를 걱정해야 하고 가족들과 수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인 트럭의 도입으로 사람들은 지루하고 단순한 반복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장시간 반복되는 육체 노동에서 오는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높아진 생산성과 효율에 맞는 임금과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장거리 트럭 운전 같은 단순하고 지루하며 반복적인 작업은 기계로 대체되고, 인간은 이를 감속하고 제어함으로써 보다 스마트하게 인간 편의를 증대시켜주는 일을 맡게 되리라. 이 경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고 인간은 현재보다 여유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문화와 레저, 관광, 오락 및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창의적인 콘텐츠(영화, 드라마, 책, VR, 게임 등) 및 즐길 거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업 및 개인의 가치가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대량 실업과 부의 불평등 현상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각 분야의 혁신적 기술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효율 기술이 농업, 의료, 교통, 제조 등 각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각종 사고 및 비효율로 인한 사회비용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 전체적인 복지수준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계가 사회 전 분야에서 그간 인간이 수행해 오던 순 작업 및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며 협업하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며 협업할 것이다. 아직까지 기계나 로봇은 공장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사람과 거의 분리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간의 일상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로봇은 빠르고 힘이 세며 단순 정밀 반복 작업에 능하다. 인간은 복잡하거나 정교하고 창의적인 일에 뛰어나므로 인간과 기계는 서로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짧은 기간에 고도화된 지식을 더욱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이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도입이 필요하다. 디지털 콘텐츠란 어려운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의 학습 보조 자료를 말한다. 공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 공식들을 접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원리·구조들을 가시화하여 쉽게 이해시켜주는 디지털 콘텐츠들이 정말 필요하다. 어려운 내용을 직접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해해가는 Hands-on Learning의 도입의 확대도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들을 학생 개개인이 사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 서비스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교재와 강의, 실습에 의존해 오던 학습 방법이 디지털 콘텐츠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학습의 편의성, 수월성이 높아지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한 학기 동안 배우던 내용을 보다 빠르게 끝내고 남은 시간에는 배운 지식을 더 높은 차원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교수들도 지식을 전달만 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에 더욱 시간을 할애해주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학생들이 엔지니어나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기계와 공존하며 협업할 수 있는 소양은 학생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 쓰일 기술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 우리 사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사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동화된 무인 기계와 로봇, ICT 기반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사회 전 분야의 인프라를 창의적으로만 들고 운용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되리라 본다. 창의적 능력,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인공지능·구인화? 자동화 기술을 사회 전 분야로 파급시켜 지속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기계의 특성과 장단점, 한계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 역시 긴요하다.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안전하게 만드는 인간 중심의 사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제조업과 ICT 기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예측이 어렵고 아직 그 아무도 정확한 모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과거 선진국을 추격하고 모방해오던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제조업과 ICT 기술이 강한 우리에게는 천우신조의 기회다. 4차 산업혁명을 미리 준비하는 혁신의 야주대학을 기대해 본다. ●



인간중심 사고 능력 더 중요해진다

-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사회 전 분야의 인프라
창의적 구축·운용 매우 중요해져

쉽고 빠른 ‘디지털 콘텐츠 학습’하고
지식은 고차원 구현해 가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리 준비하는 아주대 기대



산업공학과 교수 권용진



‘직-업職-業’이 아니라 ‘업-직業-職’이다

- 직의 관점에서 업의 관점으로

“구직도, 적응도 어렵다...”는
나라 앞길 먹구름 상징

‘직’에 대한 집착...젊은이들만 아니라
‘50대의 실패’로도 증명되

살아 온 이력, 지신만의 흥미 등에
이해와 분석 우선해야

김주후 교수 교육대학원

취업은 이제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다. 젊은이가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의 앞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뜻과 같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졸자 취업률 통계를 보면 취업자가 60%를 넘지만 그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학 졸업을 마루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젊은이, 졸업을 하고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젊은이, 취업이 가능한 전공을 다시 선택해서 기술을 배우는 젊은이 등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는 자꾸 늘어만 가고 단기간 내에 줄어들 것 같지도 않다.

최근 발표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취업을 못지않게 놀랄만한 내용이 있다. 대졸 신입사원의 약 28%가 입사 1년 내에 그만둔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정말 간절하게 염원하고 또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이라니...였던가? 신입사원 조기퇴사의 이유를 살펴보니 급여복리후생 불만과 근무 지역환경에 대한 불만이 각각 20%와 15.9%인데 반해, 조직적 직무 적응 실패가 무려 49.1%로 조사되었다. 즉 처우나 환경에 대한 불만 보다는 일 자체에 대한 적응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수치만 보면 신입사원의 적응 노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것만 같기도 한데 당사자들도 할 말이 많다. 불만을 들어보면 “이런 일이나 하려고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나?”, “완전 하고 싶었던 일과 거리가 멀다”,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조직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직장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퇴사 이유는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다. 남들이 아무려 부러워하는 자리라고 생각 일하는 당사자가 보람을 느끼기 어렵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퇴사할 수밖에 없다. 회사가 인생을 10년, 20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젊은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다르다. “기분이 안 되어 있어”, “편한 방법만 찾는다”, “조금만 힘든 일을 시켜도 못하겠다고 한다”라는 불만이 나온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구직자와 직무영역 사이의 mismatch가 불러온 문제일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발생한 상황일까? 답답한 요즘의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어떤 쪽도 문제의 핵심에 가까이 가지 못함을 발견한다. 그 이유는 일 자리를 하나의 직무나 직위의 개념에서만 바라볼 뿐 정작 그 일을 하게 될 당사자인 젊은이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특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인 정진홍의 중앙일보 칼럼(2012년 1월7일) <직이 아니라 업이다>를 읽고 많은 부분 공감했다. 이 글에서 정진홍은 청년 실업 문제를 직(職)의 관점이 아니라 업(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제안한 바 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부여하는 직의 개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의 업을 찾아 나서지 못한다면 청년실업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생각의 순서를 ‘작업이 아니라 업-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본다. 자신만의 업을 먼저 발견하고 그 바탕에서 업을 실현할 직에 대해 고민해 보자는 뜻이다.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무슨 업 타령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지적이다. 자기만의 업이 중요하기는 하나 직의 성격이나 내용을 완전히 배제한 형태의 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역시 업이 먼저임을 강조하고 싶다. 어차피 직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할 것이고, 미래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앞으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5번 전후의 이직이나 전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한다. 옥스퍼드대학의 프레이와 오스본 교수가 ‘10~20년 사이에 기존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내부의 보고서를 발표했을 정도로 실제 많은 직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은 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알파고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직, 우리 귀에 친숙하게 들리던 직, 현재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는 듯한 직 등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미래사회에서는 더더욱 직이 아니라 업에 대한 이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을 먼저 선택하고 업을 고민하는 식의 순서를 뒤집지 못하면 실사 원하는 직을 얻었다 할지라도 얼마가지 않아 그만두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50대에 회사를 그만둔 요즘 베이비붐 세대처럼, 100세 시대의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다. 남들이 평가하는 직에 대한 집착을 뒤로 밀쳐 두고 먼저 나만의 ‘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변화를 되돌아보라. 앞으로의 20년은 그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을 생각하면, 업에 대한 고민은 절박한 문제이고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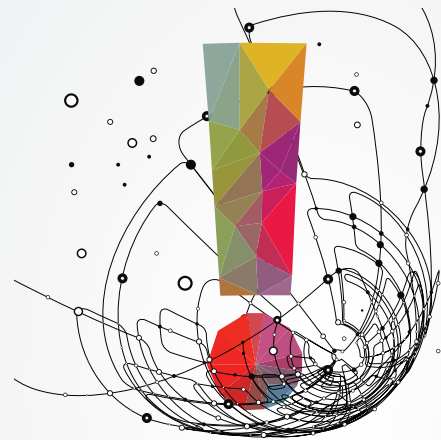
자신만의 업을 찾고 그에 맞는 직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된 성찰을 시작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적성 검사도 받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야 한다. 또 부모와 나누는 대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남아 기르면서 가장 오랜 시간 관찰해 온 부모만큼 자녀를 잘 아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학에 대한 탐구와 미래예측 연습, 미래 시나리오 만들기 등등의 작업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몇 가지 도서를 참고해 볼 것을 권한다.

<대담한 미래>, <미래학자의 통찰법>, <우리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7가지 질문>.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은 일시위주의 공부를 하느라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필자만 해도 지금은 교육학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학 때 탁한 전공은 전혀 달랐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군대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내가 무얼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제대로 할 무렵에 가서야 나만의 업을 발견했고 거기에 매진하여 오늘의 직에 이르르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업을 찾기 위해 단순 정보의 유혹에서 벗어나 필요가 있다. 그 보다는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잘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그 일을 찾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나에게만 주어진 그 업에 대한 발견 없이 시작하는 미래 설계는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더듬어 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직보다는 업이 먼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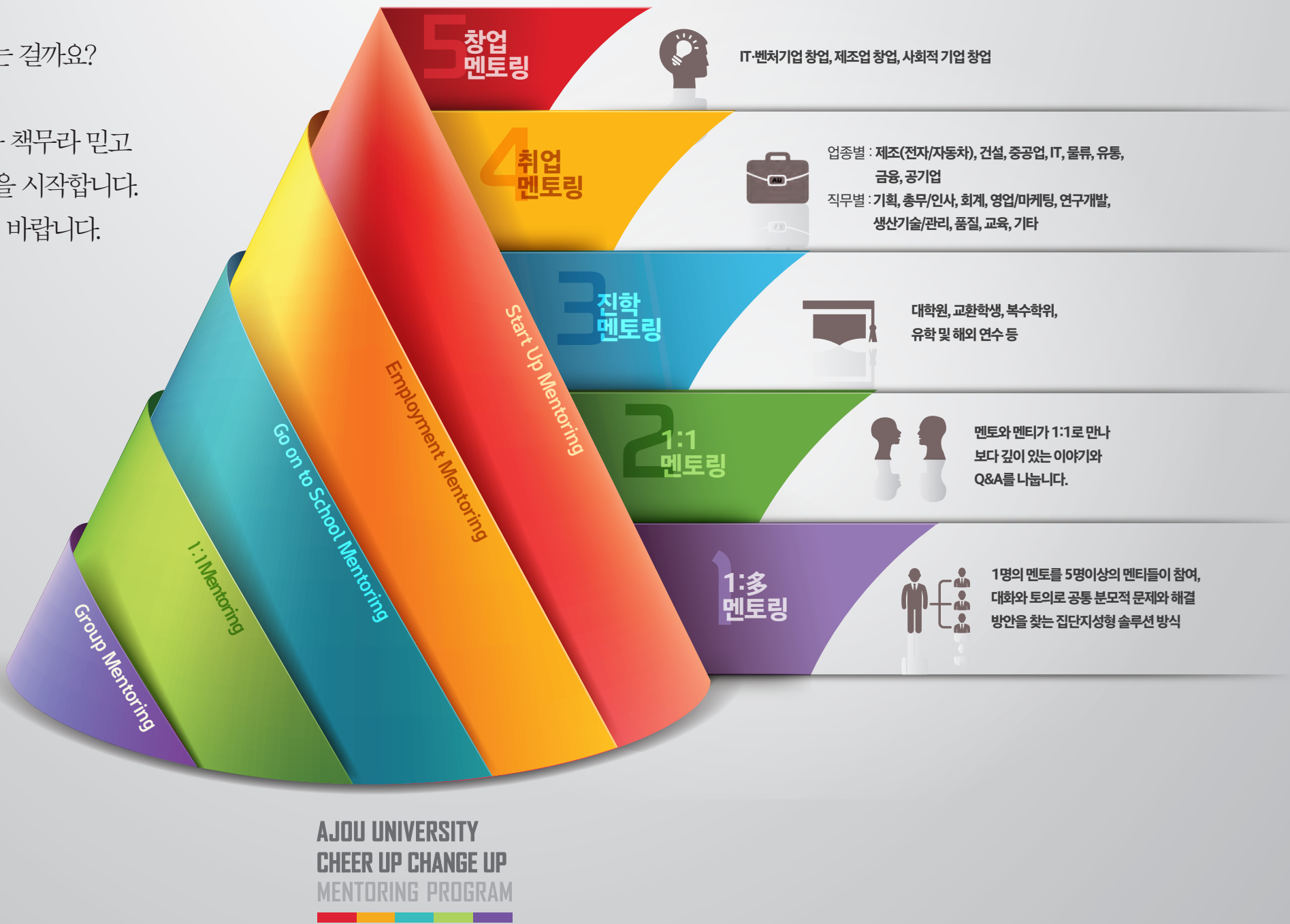
궁금함은 함께 풀어야 한다



아주대학교 Cheer Up Change Up 프로젝트 ‘유쾌한 멘토링’

졸업장 수여로 대학의 할 일은 끝나는 걸까요?
아주대학교는 진로의 분명한 길을
열어주는 것 까지가 대학의 과정이자 책무라 믿고
‘취·창업 진로 책임소프트웨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경험이 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대학을 바꾸는 대학-
아주대학교가 먼저 시작합니다.





“열심히 축구 연습했는데, 들어선 곳이 야구장이라면?”

- 직업의 시대에서 ‘業’의 시대로

“이 기사는 지난 7월12일 아주대에서 2시간 여 진행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의 대담 내용을 토대로, 김범수 의장의 스타트업캠퍼스 취임사·각종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해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PC통신 유나텔 기획과 개발, 한게임 창업 그리고 네이버와의 합병, 카카오톡 개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한국 인터넷과 모바일 산업의 역사다. 그는 단칸방 생활을 하던 어려운 집안의 2남3녀 중 맏아들. 독하게 공부해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진학했지만 대학 시절 그는 공부 보다는 놀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길로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남들보다 앞서 고민하고 움직여 오늘날의 성취를 일군 김범수 의장, 그가 이제 사회와 청년들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으로서 “이제 ‘직업’의 시대가 아니라 ‘업(業)’의 시대”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지난 7월 아주대를 방문한 김범수 의장을 만나 봤다.

글 이슬(아주대 브랜드전략실)



‘좋은 대학’이 성공 보장 시대에서 ‘몰입과 직관’ 중요한 업의 시대로

세상 바꾸는 직관
지식 넘어 ‘놀이’, ‘체험’에서 나와

스스로 달달 볶아야 생존하는 사회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가고파



❶ 지난 5월 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했던 프레젠테이션에서 “개인의 놀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나?

세계는 기존 방정식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과 로봇이 경쟁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 65%는 지금 온 세상에 없는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제조업은 더 이상 일 자리를 창출하지 어렵다. 혹자는 “고용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제는 그간 통용되던 우리 사회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엄청난 고숙성장을 이어가던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다’라는 방정식이 통했지만, 저성장 시대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좋은 대학이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미래로 향하던 디라가 끊어진 상황에 과잉 학력과 갈 곳 모르는 청년들만 남아 있다.

❷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관’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직업’의 시대가 아니라 ‘업(業)’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보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직업 하나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 제2, 제3의 직업이다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아직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나는 ‘업(業)’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하나의 직업, 직장이 아니라 스스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업의 시대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우리가 어

렸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교수,교사,대통령 등 여러 직업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업들은 없어질 지 모른다. ‘뭐 하고 싶니?’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돕고 싶어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의사라는 직업 이외에도 수많은 ‘업’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❸ 평생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업(業)’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자기 중심을 잘 잡으면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이 그런 지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 교육기관과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앞서 게임의 물이 바뀌었다고 표현했는데,게임이 바뀐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예측조차 못했던 일이다. 좋은 대학 나온 대한민국 청년이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급속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이런 예를 들 수 있었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어린아이가 있다. 드리블과 패스를 열심히 연습한다. 그리고 드디어 꿈꾸던 그라운드로 나아간다. 그런데 팬걸여가서 낮은 풍경이 펼쳐진다. 누군가 여기는 야구장이라고 알려준 것이다. 야구의 룰도 모르고 갑작스레 야구장에 서게 된다면, 그가 느낀 당혹감이나 좌절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직관’이 생길 수 없다.자신이 체험한 것에서만 직관이 나온다. 내 경험을 봐도 그렇다. NHN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다녀오고 미국으로 갔다.그때 애플 아이폰이 출시됐다. 아이폰을 직접 써본 경험은 나에게게는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 2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직관이 생겼다. 이 기기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PC통신 시절에도 인터넷을 접하면서 이것이 가져올 미래 변화를 직관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직관을 깨울 수 있는 경험과 체험의 산물이 모여서 꿈,미래를, 업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지식’의 시대가 펼쳐진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시대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에 능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❹ 자신에게 걸맞은 ‘업(業)’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 또 의미 있는 것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자기의 ‘업’이 보인다. 나는 스스로 달달 볶아야 살아남는 지금 세상의 풍토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오히려 힘들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 할애니까지 포함해 여덟 식구가 단칸방에 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재수를 했다. 독하게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다.고스트, 포커, 당구, 바둑에 폭 빠져 지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못할 것도 아닌데 이왕 놀 거 어졌잖아?다 해보자 싶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런 경험도 나에게게는 배가 되고 살이 됐다.처음에 한게임을 만들 때에 “그나마 내가 잘 하는 게 될



카카오 의장
김범수

까 하다가 게임을 비롯한 잡기를 온라인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밤새워 놀았던 경험을 온라인 환경에서 구현해보자고 했던 거다.

❶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창업’에 눈을 돌려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다.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창업을 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국한된다. ‘20대 때는 창업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작은 벤처 기업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체를 꾸러가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배워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요즘 대학들도 창업에 관심이 많고,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학 시절에는 여러 경험을 쌓아 사업가로서의 역량과 마인드를 다져가는 게 필요하다. 캠퍼스의 생태계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 안에서 훌륭한 사업가가 나올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서 기업과 사회를 경험하게 해주면 좋겠다.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민하는 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❷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의 초대 총장을 맡았다. 스타트업캠퍼스는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구상을 밝힌다면?

창업을 해 여러 기관에서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 스타트업캠퍼스는 그 보다 넓은 범위의 도움을 주고 싶다. 단순한 창업 지원 기관이 아니라 그 전 단계, 즉 체험과 교육, 경험을 두루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고자 한다. 미래를 주도할 특정 주제에 대한 단기 프로그램 뿐 아니라 중장기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는 알방직 강연이 아니라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 그리고 가꾸로 교육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을 이끌어간다. 그러한 방식이 학생들이 미래 적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 가을부터 본격적인 수강생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상을 내가 태어나기 전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고 싶다. 스타트업캠퍼스를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한 두 가지 길이나 열리게 된다면 좋겠다. 언제나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길을 찾아야 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지만, 길을 찾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보려 한다. ❸



김범수 의장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2년 삼성 SDS에 입사해 PC통신 유나텔 기획을 주도했다. 1998년 삼성SDS에서 퇴사,온라인 게임 회사 창업에 도전했다(한게임)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이끈 김 의장은 2000년 네이버와의 합병을 결정했다 이후 NHN(공동대표로 재직하던 중NHN에 사표를 내고 모바일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에 주력한다. 카카오톡으로 대히트를 친 카카오는 2014년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했다.그는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지난 5월 출범한 스타트업캠퍼스의 총장을 맡고 있다.

프리랜서 PD

김영미

“스펙은 벌레 같은 것”

-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 業이다

김영미는 프리랜서 PD다. 조직의 발전 보다는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어 '프리'를 고수해왔다는 그는 나이 서른에 PD의 길로 들어섰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 살림만 하다 이혼을 겪은 직후였다.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 속 울림을 따라 카메라를 둘러매고 나섰던 동티모르에서 PD로서 그의 첫 번째 작품이 탄생했다. 그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시리아 등 한국 언론이 직접 취재하기를 꺼리는 지역을 두루 다녔다. 그렇게 그에게 '분쟁 지역 전문 PD'라는 타이틀이 달렸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사적인 삶' 보다는 '공적인 삶'을 우선에 두고 살아간다는 그를 직접 만나봤다.

글. 이슬(아주대 브랜드전략실)

▲ 1999년에 5살된 아들을 두고 동티모르에 1년간 머물렀다고 들었다. 이때 만든 작품이 PD로서의 첫 작품 <동티모르 푸른 전사>가 됐다. 그 이후 분쟁 지역을 다니며 취재한 이력을 보면, 원래 융감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한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당시에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욕구가 강했다.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그런데 강의실에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내 속에 채워졌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그게 자꾸 나를 인도했다. '지금이라면 한번 시도해볼 만 하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번 질러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대학에서 사진을 부전공해 사진을 찍을 줄 알았고 같이 가져간 캠코더가 있어 영상을 찍게 됐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취재를 다니며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 취재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어수룩하게 다가서는 편이라 그들의 마음을 열기가 쉬운 것 같다. 혹시 스스로의 성격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처한 상황, 가진 재료 안에서 최대한을 만들어가면 된다. 우리를 기록하는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걸 수확문제 풀 듯 하나하나 해결해 가다 보면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 PD로서 자기의 분야를 구축하고, 꾸준히 개척해가기는 쉽지 않다. 김 PD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온 경우다. 프리랜서 PD로 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나?

나는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지는 않다. 종편을 비롯한 방송사에서 영인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최대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다. 조직 안에서 일을 하면 PD도 하나의 부품이 된다.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친밀감이 높아진다. PD 생활 초기 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일했는데 여길 박차고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밥 굶기 딱 좋다'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생산하는가에 따라 프리랜서 PD의 가치는 달라진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과 수공업 제품은 다르지 않다. 물론 프리랜서 PD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다(웃음).

나는 프리랜서 PD로 스스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생활 전반도 그에 맞춰 왔다. 집과 차는 가지지 않고 대중을 받지 않는다. 최소한의 생활품만 가지고 소박하게 살기로 했다. '돈이 더 필요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 PD로서의 내 가치관이 다 무너질 수 있어서, 내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인간인데,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 요즘 PD 지망생들이 방송사에 입사하는 것은 정말 바늘구멍 뚫기와 같다. 언론사 입사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사원이 될 것인가 저널리스트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PD를 지망하는 젊은이들 중 많은 경우가 방송국이라는 곳이 주는 허영심에 매료되어 있다. 화려하면서도 안정적인 이미지 말이다. 그런데 그 방송국에 어렵게 들어가면 뭐든, 결국은 다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 방송국에서 미라가 된 사람은 보지 못했다(웃음). 방송국 PD들은 시청률로 말한다. 스트레스가 그야말로 극심하고, 녹대들이 우글거리는 동굴 같은 곳이 방송국이다. 그 어렵다는 언론고시에 매달리기 전에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방송국에는 수많은 직종이 있고 방송국 밖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시작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PD는 내가 되는 거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다.

▲ 인터뷰 일정 조율을 위해 서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디로 취재를 가야 할지 몰라 1~2주 후의 스케줄은 잡지 않는다'고 말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을 위해 사적인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불안이나 어려움은 없나?

사적인 삶 보다는 공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둔다. 취재를 통해 세상 곳곳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에게서는 제1의 목표고 우선순위다. '나 하나 정도는 이라고 살아도 되자' 싶다(웃음). 사생활이 없는 것이 싫거나 힘들다고 하면 이 일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저널리스트는 성직자와 비슷하다고 본다. 세상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저널리스트에게는 제일 중요하다. 많은 국내 언론이 국제 뉴스를 다룰 때 외신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는, 직접 현장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확인 절차 없이 외신 기사를 무작정 인용할 수는 없다. 직접 현장에 가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보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물렸을 것들을, 현장에 가면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 이럴 때 느끼는 쾌감이 상당하다. 아프리카 대륙 라이베리아에 에볼라 취재를 간 적이 있다. 먹을 것을 좀 주어야 하는데 풀 뿌리, 나뭇잎 같은 것 밖에는 없었다. 이럴 때는 힘들고 짜증이 나기도 한다. 결론코 그런 곳이 좋아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뉴스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당장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나면 내가 만들어 내는 콘텐츠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달라진다.

저널리스트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가 있다. 어떤 직업이든 현장에서 생생하게 부딪혀 봐야 뭔가 쓸만한 것을 내놓을 수 있다. 말바닥에서부터 일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전략이 되기도 한다. 나의 사례처럼 말이다.

▲ 어떤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콤플렉스에 대해 언급한 것을 봤다. 10년 차 PD 시절 동료 PD가 '함께 아침 방송을 만들던 시절, 학력이나 이력을 가지고 너를 너무 괴롭혀 미안하다고 뒤늦은 사과를 전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정작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다. 정말 콤플렉스가 없나?

내게는 처벌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없었다. 되돌아보면 당시의 나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미 지방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걸 이제와 바꿀 수도 없었고 오로지 PD로서 제대로 일해 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조직’에선 PD도 부품, 전형에 빠지기 쉬워
공장제품과 수공업제품은 다르다

인간은 다 잘 할 수 없어
꼭 필요한 것 외엔 신경 끄길

어느 세상이든 하나하나 풀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때 '사회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투성이었다. 나이가 많았고 경력도 없었고 아이 딸린 아줌마에 스펙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아예 다 포기했다.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도 '서둘러 출신이 아니라 그냥 동료로 대했다. 그랬더니 동료들도 나를 외모나 학벌 같은 걸 떠나서 상관이 없어 그냥 나 그 자체로 대해주기 시작했다. 콤플렉스는 '벌레' 같은 것이다. 내 안에서 나를 갇아먹고 망가지게 만든다. 아프리카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기린 무리가 지나간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기린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똑같다. 기린들이 인간들을 봐도 마찬가지로 지릴 거다. 우리끼리 서로에 대해 따지고 있을 뿐이다. 외모? 학력? 모두 주관적인 기준일 뿐이다. 넓고 크게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부분들이다.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갇아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 해외 취재를 다니다 보면 위생전화, GPS를 비롯한 각종 생경한 기기의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고 또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가나?

기계와 친하지 않다. 그렇지만 어찌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스트레스 안 받고, 미라미리 나서서 익히려고 한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해외에 취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언어였다. 대학 1학년때 배운 교양영어를 끝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 그때부터 취재 중 주위들은 영어 단어를 한 두 개씩 말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축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이 기차회선을 열었다. 미리 가서 맨 앞줄에 의자를 놓고 기다렸다. 그리고 질문이 있나고 하면 '저요 저요' 하면서 손을 들었다. 어느 날 기차가 왔다. 더듬거리며 '미군이 전쟁 중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미군 장교는 당황하며 '직접 자세히 준비한 것은 없으나 그들의 인권을 배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외신 기자들의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저널리스트로서 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일을 할 뿐인데, 창피해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그렇게 영어 실력이 점점 늘었다. 누군가와 영어로 이야기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아는 단어를 모두 동원해 대화를 이어갔다. 외국어는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 쓰는 도구일 뿐이다.

▲ 대학생 아들을 둔 엄마 이기도 한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해달라.

청년들이 힘든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오늘은 내일 보다 잘 살아야 한다'라는 부모세대의 공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식이다.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IS도 유럽 국가로 이민 온 부모가 자기 세대의 열의와 교육열을 자녀들에게 투영한 게 근본 원인이 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청년들이 극단주의 단체로 눈을 돌리게 된 거다. 위안전 주인공 보다는 평범한 사람이 많은 게 우리네 인생사다. 오늘 보다 내일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스스로를 '패배자(loser)'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에는 우물과 슬픔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행복과 기쁨, 성취가 어우러져서 비범할처럼 살아가는 거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이나 따위의 천박한 기준으로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시대가 아니리라 본다. 스스로 얼마나 주체적으로 실현서 다른 이들과 공존하고, 세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내가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서다. ●



김영미 PD는...

대구 경일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시인들 부전공했다. 1999년 출석 1년 동티모르에서 찍은 영상을 <동티모르 푸른 전사>라는 다큐로 만들어 PD로 입행했다. 이후 SBS에서 아침 방송을 만들었고 2001년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난 뒤 폭 프리랜서 PD의 길을 걸었다. <부러위를 벗은 여인들>, <일촉즉발 이라크를 가다>, <대형 100일간의 기록, 자이툰 부대> 등을 만들었고 2006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을 직접 취재한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국제문제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CHEER業 CHANGE業

P R O J E C T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
S P E C I A L

<AFTER YOU 프로그램>과 <파란학기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대학가에 파란을 일으켜온 아주대학교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Cheer Up, Change Up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가 바로 그것.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찾을 때까지, 시작할 때까지 학교가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진로지원 프로젝트다. 올 2학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함께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Cheer Up, Change Up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를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총장을 만나봤다.

❶ 총장께서 <Cheer Up-Change Up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를 직접 발의했다고 들었는데, 그 취지와 배경은?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사회 진출에 대해 학교가 공동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자는 취지다.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업(業)을 찾을 때까지 학교도 함께 고민해줘야 하는 것이다. <Cheer Up, Change Up>을 한글로 읽으면 '취업'과 '창업'이다. 그러나 취·창업뿐 아니라 진학 등을 포함해 우리 학생들의 진로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다.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함께 격려(Cheer Up)하면서 나아가자는 뜻과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와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Change Up) 시키자는 의미를 담았다. 취업률만 보면 우리 학교는 69%(2014년말 기준) 정도다. 국내 대학 가운데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학교의 취업률이 최근 하강 곡선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5%p 정도나 떨어졌다. 취업난 때문에 타 대학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아주가족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Cheer Up, Change Up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창업·진학률을 끌어올릴(Up)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업(業)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올 2학기부터 대학본부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려 한다.

❷ <Cheer Up-Change Up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대학생생활 사이클을 별로 체계적인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졸업을 유예하거나 이미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 저학년 대상, 진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Early Awakening' ▲ 신입생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교수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전문가

의 맞춤형 개별 상담제 ▲ 단과대학 별 최근 졸업 동문의 취업·창업·진학에 관한 생생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 ▲ 학생별 개인 상황에 맞춘 어학, 인문학, 인턴십 기술 등 진로 지원 패키지 ▲ 원하는 아주대생이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진로상담 멘토 매칭(가칭) 유쾌한 멘토링) 등이다.

❸ <Cheer Up-Change Up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계열·학과·학생 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취업통계를 분석해보니 이공계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듣고 전공 역량을 잘 키운 학생이, 인문·사회계는 인턴, 교환학생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이 유리했다. 따라서 이공계는 전공을 보다 심화시키고, 인문·사회계는 다양한 도전과 경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AFTER YOU' 프로그램, 파란학기제, 글로벌 인턴십 등을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또한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학과 간 유기적인 관계 구축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시범학과 중심으로 학과 별 특화 진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❹ AI(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로 우리 사회가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청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앞으로 10년 뒤면 현 일자리 가운데 60%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직장을 잡을 무렵에는 65%가 지금은 있지도 않은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이다. 정답이 아닌 자기답을 찾는 공부와 경험을 해야 한다. 진열장에서 상품 고르듯 꿈이나 직업을 고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긴 호흡으로 내 꿈과 내 업(業)을 찾아야 한다. 청년들 앞에 수많은 '꿈 해방관'이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뿐 아니라 때로는 교사나 교수, 부모들이 되기도 한다. 꿈을 찾는 도전을 가로막고,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아가길 강요한다. 이 장애를 뛰어넘는 도전에 나서야 한다. 블루오션을 찾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만난 우리 인턴 학생들이 씩씩하게 자기 길을 개척하는 것을 봤다. 자랑스러웠다. 앞으로 학교는 이런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려 한다.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제 해결과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함께”

- 프로그램 발의한 김동연 총장 인터뷰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INTERVIEW

CHEER業
CHANGE業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

PROGRAM



Early Awakening
취업전담교과과정

취지

- 진로 설정의 중요성 조기 인식
- 다양한 진로 정보 획득

촉진방안

- 「아주희망」 교과목을 진로지도 중심으로 전환
- 「필수진로과목」 추가 지정



밀착형 Counseling

취지

- 학과 특성을 고려한 진로 지도 강화

촉진방안

- 진로 지도 교수제 운영
- 산학협력 증점 교수 채용 확대



취업 현장 정보
신배 멘토링

취지

- 생생한 취업 정보 획득

촉진방안

- '선배 초청의 날' 추진
- 업종별, 직무별 선배 풀 DB화



학적유지자 및
졸업생 진로 지도

취지

- 취업 준비기간 단축
- 취업 스킬 향상

촉진방안

- 학적유지자 사전 상담 진행
- 졸업생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유쾌한 멘토링

취지

- 취업, 창업, 진학 등 진로 전반에 대한 멘토링

촉진방안

- 다양한 멘토 풀 확보
- 1:1 심층멘토링 및 1:2 멘토링

미래인재 - 강한 기업에게 듣다 ③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 보다
얼마나 나와 맞는가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직장이란 20대부터 50대 정도까지, 30여년을 보내야 하는 곳이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 취업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 돈을 번다는 차원의 문제 가 아니다. 직장 생활은 마라톤이다. 일단 입사고 보지는 생각으로 초 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연봉, 복리후생등 여러 조건에서 중소 기업 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데 데가서 이것들만 더 중요하지는 않다. 다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더 좋은 직장인지 이것들만 더 좋다면 그 어떤 대기업 보다 더 좋은 직장일지 될 수도 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직원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 세 번째는 수평적 조직 문화다. 이런 조건을 갖춘 중간기업이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입사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회사와 개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연봉은 구직자들이 중시하는 회사인지만 그 정도 하나다. 그러나 연봉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초반에 연봉을 얼마 받는 지 보다는 10년 10년 뒤의 연봉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하다. 경력이 10년 넘거나 면 일할 때는 연봉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해진다. 능력만 좋아면 별 달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10년 뒤 마라짐을 그리고, 입사 초기 중요한 것은 높은 연봉과 편안함이 아니라 도전과 경험, 그리고 자신에 대한 투지다. 지금 연봉 3000만원을 받지만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없는 회사 보다는 현재 2000만원을 받더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

더불어 어떤 회사에 갈 것인 보다는 직무를 더 우선해서 가게 좋다. 회사 이름이나 이름이 보다는 회사와 내가 더 만나야 할 것이지, 또 맡게 될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따져야 한다. 회사는 언제든 옮길 수 있지만 직무는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다. 좋아 하면서도 잘 할 수 있는 일을 직무로 택해야 한다. 좋아하지 않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 선택의 순서는 직무가 먼저, 그 다음이 연봉, 마지막으로 회사가 되어야 한다.

김서인

샘표식품 인사담당장 이사

“용기는 눈물속에 있고, 도전은 눈빛 속에 있다”

"AFTER YOU"
글로벌 캠퍼스

사회적이동성의 실현,
어려운 학우 우선의
수준 높은 해외연수 제공,
100% 사회 인사의
편입으로 기금 마련



유쾌한반란
당신만의 세계를, 더 좋은 세상을—
아주대학교

유쾌한반란
Global Internship

인턴십의 국제화.
BMW, KOTRA,
OKTA, CKP, H마트 등
글로벌기업 장단기
취·창업형 인턴십

**Cheer Up
Change Up**
PROJECT
취·창업 진로 책임서포트제

찾을 때까지,
시작할 때까지 -
출입이후 진로를
학교가 끝까지
공동책임으로 개척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면 더 이상 배우지마라! 사치다.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세상을 더 새롭고, 가치있게- 대학을 바꾸는 대학, 아주대학교가 당신의 ‘유쾌한 반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나만의 대학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과제를 설계, 실천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기제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If you have a garden and a library,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CIC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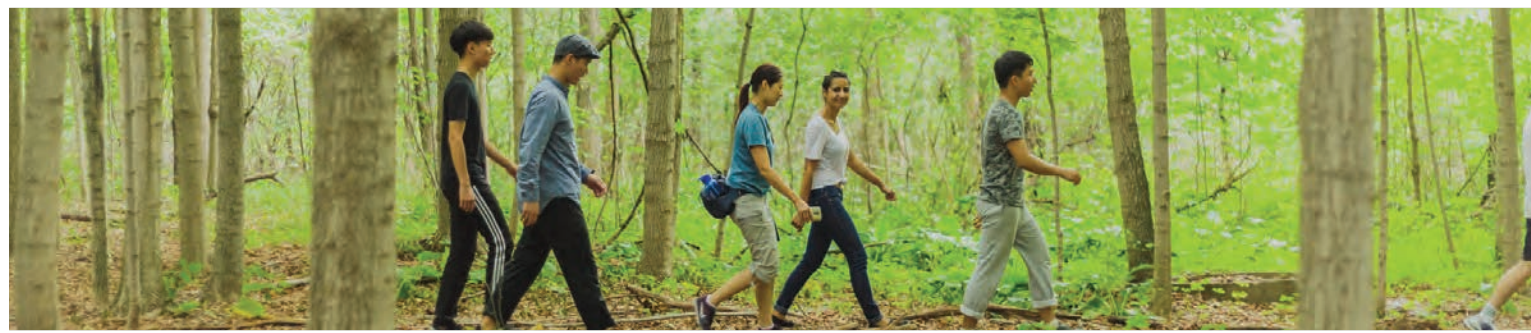
한가한 이야기 같지만, 최고의 행복은 글과 함께 하는 일과 깨침을, 작은 정원에서 펼쳐지는 유종의 감성이라 했다.
향유하지 않은 이야기들에서도, 머뭇는 인문적 사고를함과 동시에 창의성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오늘날의 명상 있는 도서관들은 도서관들이 이미 남아있는 듯 했다.
놀라운 디자인은 하드웨어적 구현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문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
부담감도 떨어지고, 결혼기념 시면도 책으며, 손에 책을 들고 발을 걸터 올려 대면에 올랐다.
그런 모습에서도 신나게 시끄럽지도, 눈에 거슬리지도 않는 도서관 문양이 유지되고 있다.
이 스포츠웨어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시애틀서버본서면 2016.8.9 촬영 <이우시애틀서면> 남경호 / LG G3 MobilePhone F400 AF

AJOU GREAT TURNING
중양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아주대학교가 중양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는 2015년 수립한 대학발전계획 'Ajou Great Turning'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최경희 신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대학 학장과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중양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가 구성됐다.
총학·생회장과 동문회 임원진도 함께한다. 추진위원회는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1층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앞서 6~7월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연구도 진행했다.
또한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결과 중양도서관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곳 1위로 꼽혔다.
중양도서관은 1983년 준공되어 건물과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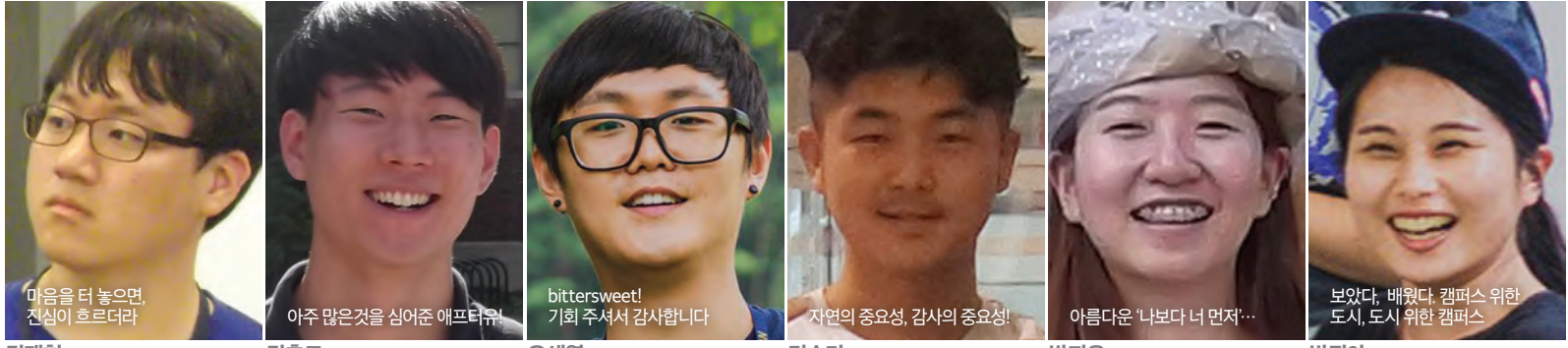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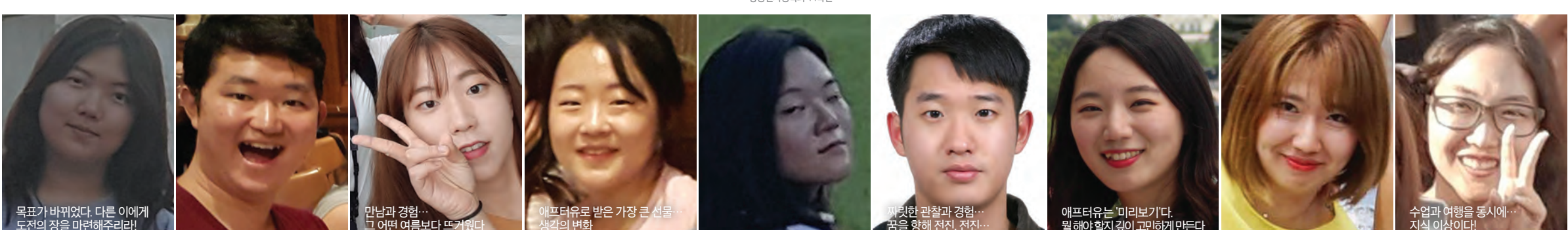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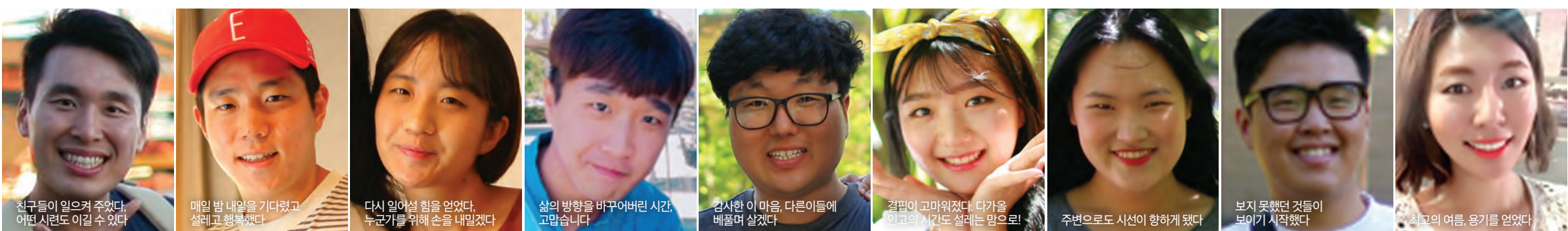




“AFTERYOU” 프로그램 2016 SUMMER GLOBAL CAMPUS REPORT

Photo Sketch : Suwon-Seattle-Ann Arbor-
Baltimore-Beijing-Shanghai





“AFTERYOU” 프로그램 2016 SUMMER GLOBAL CAMPUS REPORT

Photo Sketch : Suwon-Seattle-Ann Arbor-
Baltimore-Beijing-Shangh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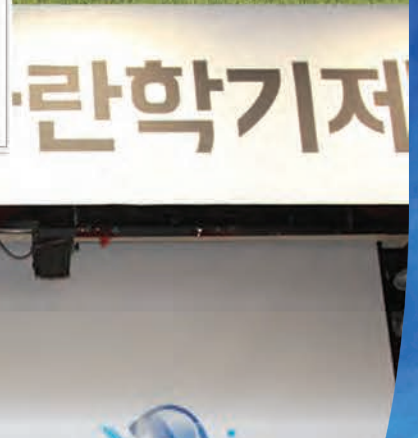




파란학기제-‘첫 번째 알’을 깨고 나오다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깨달라는 파란(깨끗)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겼다.

PARAN SEMESTER REPORT



장우진 교수 / 대학교육혁신원장

“도전은 실천이자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자신감을 얻고 그 결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도전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 학교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뒷받침해야 할까요? 그 진지한 출발점이 파란학기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도훈 오비맥주 대표

“파란학기제가 철학은 우리 브랜드의 철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께 꿈(Dream)과 사람(People), 문화(Culture)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꿈을 꾸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Daring Mind'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니들을 좋아하는 것은 2등 재미일 뿐입니다. 리더는 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란학기제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대표이사 회장

“계란 껍질이라는 보호막 안에 머물면 계란으로 남을 수박에 없듯이, 도전과 용기가 없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AJOU 2016
1st 파란학기제

심사교수,
파트너기업 격려사

Global Alumni Messag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기회는 정중동 靜中動에 있다

영어영문학과 94학번 **김정민**
홍콩폴리텍대학 재무회계학과 교수



김정민 동문은 지난 2014년 홍콩폴리텍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재무학을 가르치고 있다. 박사학위를 받고 강단에 서기까지, 그는 어느 곳 어느 위치에서 건 최선을 다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오늘날의 그를 만들었다.

1994년 아주대학교에 입학해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정치외교학을 부전공한 김 동문은 졸업 후 고려대 국제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후 적을 두게 된 곳은 '파 이스턴 이코노미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라는 영문 주간지로, 이곳에서 기자로서 그의 커리어가 시작됐다. 대학 시절의 전공과 영자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한 이력 등이 바탕이 됐다. 이후 영자 신문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로 자리를 옮겨 주로 경제와 금융 분야 기사를 담당 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한국에서 과연 얼마나 오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몰려들었다. 고민 끝에 휴직을 결정했다. '나 자신에 대한 마지막 투자라는 생각으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 재무학(Finance) 석사 과정에 들어갔다. 박사 과정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이어갔다. 박사를 마치는 데 5년이 걸렸지만 학비를 면제 받는다는 생활비 보조도 받았다. 그가 후배들에게 시야를 넓혀보라 권하는 이유다.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면, 물론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의 어려움과 다시 구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사로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마음 편히 학업에 집중했다." 김 동문은 처음부터 강단에 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단 것은 아니다. 대학 시절 지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목표는 막연했고 전략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으로 도전했으면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든다. 졸업을 앞두고 금융회사, 방송국, 심지어 항공사에까지 마구잡이 지원서를 냈다. 후배들은 '왜연 뭘까? 해도 안될 것 같아'라는 부정적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정중동(靜中動)하다보면 결국에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 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색하다보면 기회는 언젠가 나에게로 온다."

강단에 선 지 이제 2년, 김 동문의 목표는 '일력과 품성을 갖춘 학자로 자리 잡는 것이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의 인생 설계에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서 커다란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

올해 들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인간이 정말 컴퓨터(혹은 인공지능)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Google의 알파고와 우리나라의 이세돌 9단 간에 벌어진 세기의 바둑대결 때문이다. 이 대결에서 우리의 이세돌 9단이 1승4패로 지고 난 뒤 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통해 한동안은 기본적인 일조차 할 수 없을 지경에 가까웠다. 인간 생각의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이 주 임무인 인지(認知) 심리학 전공자이니 그 질문을 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다. 당시 많은 분들에게 답을 드렸고 내린 김에 본 지면에서 그 이유와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공유해 보려고 한다.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학업과 잠재력의 발달에 엄청난 화두를 던진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미 컴퓨터에게 져 왔다. IBM의 딥블루에 1990년대 후반부터 체스를 졌고 2011년 미국 퀴즈프로 챔피언에게도 또 다른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 인간(프로 2명)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안다'와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판단 능력과 그 속도에 있어서는 이미 컴퓨터에게 추월당한지 오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의 측면에서 인간은 여전히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컴퓨터를 이길 수밖에 없다. 바로 '모른다'와 '할 수 없다'에 대한 판단 능력과 그 속도다. 2011년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은 퀴즈 내용에 포함된 세 가지 단어의 조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답률은 10% 정도였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지금 생각해보면 컴퓨터가 취하는 일반적 프로그래밍 방식이나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엉뚱한 측면을 통해 판단한다. 그것은 바로 '진실함'이다. 그래서 오답이 아니라 아예 모른다는 판단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는 "예"라는 대답이 쉽게 나온다. 반면 "이집트에서 9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아시나요?"라는 질문에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같은 속도로 매우 쉽고 빠르게 나온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지닌 대단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는 모른다(즉 그 파일 혹은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없다)고 대답하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검색'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모른다는 답을 빛의 속도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기제를 인지 심리학자들은 '메타인지(meta-cognition)'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자면 '안다'와 '모른다' 혹은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에 관한 판단의 기제를 인간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판단 근거의 대부분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빠르다는 것이다. 빠르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 메타인지는 단순히 판단한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메타인지는 한 가지만 본다. 바로 '진실함'이다. 인간은 진속하면 '안다' 혹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쉽게 또한 완전히 낯설면 '모른다'와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빛의 속도로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판단의 정확함은 별개의 문제지만 말이다. 왜 인간은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진실함이라는 단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보다는 빠른 판단을 통해 그 다음에 할 행동을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것이 생존에 더욱 적합하다. 알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모르면 찾아보거나 배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다음 행동을 빨리 취하는 편이 정확한 판단을 장고 끝에 하는 쪽 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세상에 적응해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는 이유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인간이 컴퓨터보다
'안다, 모른다'와
'할 수 있다, 없다'에
잣대 하나 더 가진 셈

장고 끝 '정확 판단' 보다
인간의 '광속 판단'이 유리

스터디그룹 수혜자는
청중보다 발표자이듯
눈과 입 사용하는 수고의 혜택 커

가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이 진속하기는 한데 실상 잘 모르는 것이라면? 메타인지가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순간이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어떤 대상을 접하거나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빠져대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을 경험한다. 도서관에서 자신감 있게 시험공부를 마치고 교실에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학생, 고장 난 자동차의 보닛을 자신 있게 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곤 난감해 하는 운전자, 잘 알고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그 계획의 중요한 세부사항들을 거의 모르고 있음을 느끼고 막막해 하는 경영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봐서 진속한 대상에 대해 실제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음을 발견하고 난감해 한다. 그렇다면 진속함이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하는 함정은 여기가 끝인가? 아니다. 더 큰 함정을 만든다. 왜냐하면 진속함은 우리로 하여금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이는 다시금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속함이 주는 판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메타인지가 주는 고마움 즉 인간만의 특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미트 싱킹(Smart Thinking)의 저자로 우리나라 대중에게도 이제 꽤 익숙한 인물인 텍사스 대학 심리학과의 Arthur B. Markman 교수가 그 해답을 내놓았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다. 두 번째는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다.' Markman 교수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대답한다. 후자인 지식이다. 전자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것이다. 상대성 원리를 생각해 낸 것뿐 아니라 세상에 그 원리를 설명까지 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저명한 과학자라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엄청난 힘이 이 메타인지를 증진시키는 자를감이나 왕도는 없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진속함과 실제 아는 정도의 괴리를 '확인'하여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하기'의 일상화다. 설명은 필연적으로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는 우리의 언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한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중간 중간에 '이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말들을 떠올릴 수 없는 경우, 우리는 잘못된 메타인지 판단의 결과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스터디 그룹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발표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아랍 없는 수고로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해 온 발표자임이 분명해 지는 이유이다. 대중 연설에 능한 정치인이나 학자, 혹은 유명인이더라도 대부분 자신이 예기할 내용을 여러 번 시연해 본다. 그것도 다양한 대상에게 말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알릴 내용이 아니라 할 일들에 대해 더욱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지식 중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타인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것만을 진짜 지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알아가면서 논리이 아닌 일까지 사용하는 수고의 혜택은 진짜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것이 우리가 대학에서 입을 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야를 막론하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IQ가 아닌 메타인지에서 한 수 위기 때문이다. ●

내 정신의
고향에서

민성진
경영학과 90학번
삼정 KPMG 사무이사

아주 소박하고 아주 넉넉했던

“히스토리 찾지말고, 마이스토리 만들어 가세요”

아주대 재학시절 공인회계사 준비반(양지환)에서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커리큘럼도 없었고, 누적인 합격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 역시 없는 상태에서 양지환 멤버 여남은 명은 때론 기혹하게 서로를 비판하고 때론 위로하면서 공부를 해나갔지요. 성공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주변에 합격자가 없다는 데서 오는 집단적인 열매감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멤버들이 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한 각자 영역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한걸 보면 우리들의 역사가 그리 실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재학 중 휴학이 일반화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1990년대만 해도 입학에서 졸업까지는 군 휴학을 감안하더라도 통상 6~7년이 정상이었죠. 저는 1990년 3월부터 1999년 7월까지 대략 9년 반 정도(군 생활로 인한 30개월을 제외하고)를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정문 앞에는 길 양쪽에 딸기밭과 소나무 숲이 있었고, 캠퍼스라야 풀타리도 없는 운동장에 건물 몇 채가 전부였는데 아마도 위압적이지 않고 소박한 따뜻한 여류로움이 좋았었나 봅니다.

1994년에 양지현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수험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양지현은 주로 88학번에서 93학번까지를 주축으로 운영되었는데 정보량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이라 각종 정보의 공유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었습니다. 막 회계원리 교재를 끝내고, 여름방학 때 친구와 둘이서 1000페이지가 넘는 중급회계 문제집을 매일 50페이지씩 서로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스터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애어컨도 없는 강릉 같은 고시원에서 강의 준비에 매일 10시간 이상이 걸렸고, 내용의 30% 정도는 서로 이해를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만 그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1996년에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2차 시험에 두 번 낙방했는데, 학습량이나 실력의 부족 탓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출제자 의도를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과 마인드컨트롤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북한산 인근의 절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다섯 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주로 집을 자라나 산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2차 시험 첫날 1교시 세박 시간에 손이 떨려서 답안지에 "문제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글자를 두 손으로 쓸 정도였는데, 합격하던 해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5년 반 만에 도 닦는 기분으로 수험생활을 마쳤습니다.

스물아홉에 입사한 회계법인에서 더 큰 벽을 마주했습니다. 학창시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나만의 방법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였습니다. 회계법인 생활에서도 내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하나씩 업무를 제 것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회계법인 근무 3년정도 지나면 중소기업의 실무팀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책임도 맡아지고 업무량이 대폭 늘어 많은 회계사들이 이 무렵 회사를 떠나게 되지요. 저 역시 3년차에 들어서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회사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탓이었지요. 그럼에도 제가 수행하는 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는 회계감사 업무의 매력에 빠져 일에 푹 파몰려서 지냈습니다. 몇 년 후 매니저가 되었고 소위 조직 관리 및 행정 마케팅 업무가 주업무로 주어졌습니다. 실무에서 손을 떼다 보니, 업무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나를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KPMG 폴란드가에서 2년간 근무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회계감사가 주업이던 저에게 폴란드에서 주어진 역할은 한국 회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용역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였습니다. EU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관세, 상법 등 생소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공부하고 동료들에게 자료를 구하면서 3개월만에 10Kg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어지간한 유럽 세무전문가 수준의 자문이 가능해졌고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고 유럽에 정착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몇 달 전에 모 공공기관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데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이다 보니,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데도 상당한 경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의 지원서류를 넘겨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연련을 통해 합격한 지원자들의 특징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원하는 분야 및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식견이 있는 지원자에게 질문이 집중되었고 특화된 강점을 가진 위기 대처능력과 자기확신이 있는 지원자들이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면접관들의 평가 결과가 유사하게 분포하였습니다.

얼마 전 다산과 강당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재학생 후배들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선배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단당하게 발표하는 후배들을 보며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많은 선배들이 냉정하게 지적한 것처럼 많은 참가자들이 과제발표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신입생 때부터 아주대 졸업생에게 따라다니는 수석어는 '성실입니다. 각인된 고정관념이 요즘 많이 변했음을 느낄수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미천한 경험으로 후배들에게 몇 가지 당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글로벌 시대에 대한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영어와 외국어 실력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의 문화, 종교, 철학, 사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그들과 융합할 수 있습니다. 타민족에 대한 이해는 사고의 폭을 한 단계 넓혀주고 일상에서 행해지는 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에 있어 선택의 폭 역시 넓어짐을 의미합니다.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작은 일 차이가 쌓이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적성을 잘 활용하자는 다분히 상투적인 얘기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무시한 답습은 많은 경우 좌절만 불러오게 됩니다. 혼자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친화력 있고 달변에 인맥 풍부하고 좋은 직장에서 자란 사람을 떠올립니다. 어쨌든 말투에 능숙한 어른인 저에게는 애석하지만 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낯선 폴란드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하지만 고객의 문제를 끝까지 분석해 해결해 주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투박한 그대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름대로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 수임하고 고객 기반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영업을 고객의 고민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였고, 많은 회사에서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기 보다 스스로의 적성을 발전시킨다면, 예상치 못했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서없이 몇 마디 소견을 비쳤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작은 지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개원



소중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현장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공간이다. 사람의 의지와 신의 냉정이 부딪히는 곳이다. 누군가의 선구자적 소신과 묵묵한 희생으로 시작된 곳이다. 빠른 대처와 헌신에 따라 한 해 1만 명(한국, 2015년 기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곳이다. 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지정과 지원을 받아 경기도 남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첨단 시설들을 공개하며 문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8월 한 공민 옥상 응급 헬기착륙장에 시험 착륙하는 모습.

RESEARCH NEWS

Acoustic analysis of vowel sounds before and after orthognathic surgery

김영호 교수팀,
주걱턱 환자 악교정수술 후 발음개선 규명

임상치의학대학원



김영호 교수(아주대병원 치과병원장 겸 임상치의학대학원장)팀이 '주걱턱'으로 불리는 부정교합 환자들이 악교정 수술 후 정상 발음으로 회복됨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언어학 과 대학원 상성서울병원 구강외과임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김 교수팀은 먼저 3급 부정교합 24명과 정상교합 24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8개 단모음(이, 에, 어, 아, 어, 오, 우, 으)발음을 측정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걱턱환자는 ▲아래턱의 과도한 성장 ▲위턱의 상대적 열성장 ▲혀의 상대적인 저위치 등 골격적 문제로 인해 비정상적인 발음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음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인 프라트(Praat)를 사용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구도를 나타내는 F1 값이 고모음(ㅣ, ㅡ, ㅜ, ㅡ)에서 낮고 저모음(ㅐ, ㅓ, ㅕ, ㅗ)에서 높게 나타나 3급 부정교합 환자가 비교적 큰 수직공간을 발음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혀의 위치가 정상교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위치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악교정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해 재측정한 결과 주걱턱 환자의 발음이 정상교합자의 발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했다.

김영호 교수는 "주걱턱 환자가 흔히 '발음이 새는 것 같다. 혀 짧은 발음이 나온다고 호소하는 이유는 주걱턱의 구조적인 특징과 관련된 문제'라며 "악교정 수술 후에 발음이 개선되는 효과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개인에게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음 개선 효과는 개인차가 클 수 있고, 악교정 수술 후 체계적인 발음 훈련을 통해 좀 더 완벽한 발음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두개안면 외과학회지(Journal of Cranio-Maxillo-Facial Surgery)>에 게재.



Highly efficient single-junction GaAs thin-film solar cell on flexible substrate

이재진·허준석 교수팀,
유연하고 효율성 높은 태양전지 개발

전자공학파



아주대 전자공학과 이재진·허준석 교수 연구팀이 유기금속화학 증착장비(MOCVD) 기술을 이용해 초경량 고효율의 태양전지 웨이퍼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자에서 발간하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실렸다. 연구팀은 얇은 필름형태 임에도 효율이 높고 유연한 태양전지 웨이퍼를 개발했다. 이 웨이퍼는 무게가 가벼워 무인 항공기나 휴대용 전자기기 등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연성을 갖춘 태양전지는 지금까지 대부분 유기소재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왔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무기소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아주대 연구팀은 이에 대표적 무기소재인 갈륨비소(GaAs)를 활용해 태양전지 웨이퍼를 만들었다.

연구팀은 "유기금속화학 증착장비(MOCVD)에서 성장한 고품질의 태양전지 에피웨이퍼(갈륨비소 기판에 반도체 성질을 가하는 과정)에 새롭게 개발한 p-type 전극을 적용해 유연한 갈륨비소 태양전지를 만들었다"며 "유연성과 경량화에 강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단단한 갈륨비소 기판은 재사용이 가능해 제조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는 문성현(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교육부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연구 지원사업(산진연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RESEARCH NEWS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를 이미지입니다.

Prof. Lee assessed the cytotoxicity of silica-coated magnetic nanoparticles

이광 교수팀,
나노입자 독성 수치화 기술 개발

의과대학



아주대 의과대학 이광 교수팀이 미세한 나노 입자의 독성을 수치화해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7월5일자에 실렸다. 나노입자는 바이오칩, 초소형 바이오 센서, 디스플레이 등 화학·전자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아 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부 나노입자가 뇌의 혈액뇌장벽에서 걸러지지않아 뇌신경세포에 쌓인다는 연구가 보고된바있다. 현재 나노입자에 의한 뇌신경 독성을 측정하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 교수팀은 유전체, 단백질체, 대사체 등 생물학의 유전체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인 '오믹스(omics)'를 통합 적용해 나노입자의 독성 기제를 밝혀냈다. 인체와 유사한 실험 조건을 만들 기 위해 자성 나노입자를 생체에 적합한 실리카로 코팅한 뒤, 실험용 생쥐의 뇌에서 분리 한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그 결과 나노입자는 뇌신경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슈페산 스)를 증가시켜 세포 내 단백질의 분해 능력을 떨어뜨리고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인 응집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 교수는 "앞으로 나노입자의 안전성 평가가 중요한 나노 화장품, 나노 식품, 나노 메디슨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기초연구)과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Highly Stereoselective Substrate-Controlled Asymmetric Syntheses of both 2,5-cis- and trans-Tetrahydrofuranoid Oxylipids

약대 김형수 교수,
필수지방산 지질 대사물질 합성법 개발

약학과



아주대 약학대학 김형수 교수팀이 의학·화학적 연구에 중요한 단초가 되는 필수 지방산 지질 대사물질의 합성법을 개발했다. 이로써 순도 높은 인체 내 지질 대사물질을 다양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어 의학·화학적 연구와 신약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질대사물질은 생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를 전달하거나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논문은 화학분야 권위자인 <앙겔반데 케미(Angewandte Chemie)>에 게재. 대학원에 석학중인 신원진·정용준학생이 제1저자로 연구에 함께 참여했다.

김 교수팀은 이소퓨란(Isofurans)의 핵심골격인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고리(THF ring)를 구성하는 두 물질인 시스-테트라하이드로퓨란(cis-THF)과 트랜스-테트라하이드로퓨란(trans-THF)을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소퓨란은 5원환 산소 고리(tetrahydrofuran, THF)를 핵심 골격으로 하는 대사체로 생체 내에서 필수 지방산인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으로부터 합성되는 생리활성물질이다. 이 물질의 역할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과학자들은 이 화합물이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이 신경전달물질로서 안압 하강, 자궁 수축 등의 생리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이미 약물로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곧 이소퓨란이라는 물질 역시 뇌내장 치료, 유도분만 등의 신약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합성법으로 순도 높은 생리활성물질인 이소퓨란 중간체를 다양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또한 원하는 위치에 적절한 작용기를 도입할 수 있어 다양한 유사물질을 손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조-활성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의학·화학적 연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일반 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Characterizing treatment pathways at scale using the OHDSI network

박래웅 교수팀,
빅데이터 분석으로 만성질환 치료법의 국가적 차이 밝혀

의과대학



아주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팀이 다국적 의료 빅데이터 연구에 참여해 일반적 만성질환 환자의 치료법에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에는 국내외 56개의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오더케이 컨소시엄(OHDSI,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이 주도, 이 단체는 다국적 의료 빅데이터를 공동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다국적 비영리 조직이다.

박 교수팀을 비롯한 오더케이 컨소시엄은 전세계 2억5000만 환자의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 패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최초 치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메트포르민 치료제를 처방하지만, 2차 치료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치료 양상을 보임을 밝혀냈다. 또 당뇨병과 달리 고혈압이나 우울증에서는 최초 치료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박래웅 교수는 "이 연구는 다국적 의료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모델로 전환되어 단기간에 대규모 관찰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의약품과 의료 제품의 안전 감시 및 비교 효과를 연구하고, 타인종과 한국인의 애후차이와 개인별 맞춤치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미국임파학원회보(JNACS) 6월호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NEWS >>>

PEOPLE

세계로 가는 아주인, '글로벌 인턴십' 확대키로



김동연 총장이 지난 7월 말 미국 LA와 시애틀을 방문해 미국 내 한인 기업들과 학생 인턴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CKP LA 사무소에서 김춘 대표와 만나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CKP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아시아 회계법인으로 지난해부터 아주대 학생들을 유급 인턴으로 채용해왔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명의 회계 전공 학생들이 인턴으로 파견된 바 있다. 양측은 기존에 6주~3개월 동안 진행하던 단기 인턴십을 확대해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1년 과정의 장기 인턴십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주대는 미국 내 최대 아시아인 마트인 H-마트와도 인턴십 협약을 체결했다. H-마트에는 지난 8월부터 12명의 아주대 학생들이 인턴으로 파견되어 마케팅과 디자인, 구매 등 관리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턴십 규모를 확대해 앞으로 매년 50명의 학생을 1년 간 인턴으로 파견키로 했다. 한편 김동연 총장은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월드 옥타(OKTA)' 방콕 대표자 대회에 참여, 태국을 비롯한 한-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들과 아주대 글로벌 인턴십 참여 및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아주대는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14개국 21개 기업에 60여 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EVENT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위한 첫 위원회 회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첫 번째 기획위원회의가 8월18일 오전 중앙도서관 1층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총장과 신동우 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 위원장인 최경희 산학부총장을 비롯해 각 대학 학장과 관련 부서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경진 총학생회장과 박용원 총동문회 조직위원장, 조원규 건축학과 동문회장, 조정만 공공정책대학원 총동창회장장과 관련 부서 직원들도 함께 자리해 의견을 개진했다. 아주대는 지난해 대학 발전계획인 'Ajou Great Turning'을 수립하고 캠퍼스 환경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앙도서관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곳 1위로 꼽혔다. 또한 지난 6~7월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기초로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EVENT

아주대-월드 옥타 '2016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개최



아주대학교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 옥타)가 공동 개최한 '2016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이 7월28일 고양시 컨텍스에서 열린 수료식을 끝으로 6박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25개국 49개 도시에서 선발된 재외 동포와 아주대 창업동아리, 치의과학대학 학생, 성균관대 추천 창업자 등 총 160여명의 참가자와 50여명의 운영진이 참가했다. 행사는 아주대에서 3일, 컨텍스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7월22일 아주대에서 열린 입교식에는 김부성 새누리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이 참가해 청년 사업가들을 격려했다. 박기춘 월드 옥타 회장의 개회사와 김동연 아주대 총장의 환영사도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15개팀은 창업과 마케팅으로 분야를 나누어 경연을 펼쳤다. 창업 팀들은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시장에 진출할 창업 아이템을 발굴했고 마케팅 팀들은 기존 제품을 해외 시장에 진출시키는 전략을 짰다. 예산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5개팀은 수료식에 앞서 발표를 진행했고, 이중 마케팅 전략을 세운 마루다함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마루다함팀은 아주대 학생창업기업이 개발한 화상방식 전달기를 캐나다에 진출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최우수상팀에게는 10월 강원도 정선 하이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타이징 스타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자격이 주어졌다. 지난해 최우수상팀은 설명회에서 250만 달러를 유치한 바 있다. 최경희 아주대 산학부총장은 "월드 옥타와의 글로벌창업 무역스쿨 공동 개최를 통해 얻은 우수성과들과 네트워크 기반이 'AJOU-OKTA' 글로벌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협력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다졌다"고 말했다.



EVENT

아주대-수원시 주최 드론 페스티벌



수원시와 아주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6 수원 드론 페스티벌'이 지난 6월25일부터 이틀 동안 아주대 캠퍼스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드론 페스티벌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드론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운동장에서는 드론 편대의 비행, 경주용 드론 비행과 경찰, 타격, 정밀작업, 농약살포 등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시연되기도 했다. 또 드론과 관련된 산업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드론과 부품을 전시한 부스들도 마련됐다. 실내체육관에서는 미니 드론레이스 대회, 드론댄싱 쇼, 드론 파이터 체험교실과 드론 영화제 입상작 상영, 드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이 진행됐다. 특히 드론산업의 발전과 투자유치 및 신기술 실증 등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관이 마련되어 국내 드론 산업체의 비즈니스 상담, 마케팅 및 월드 옥타의 참여를 통한 해외 수출 상담등도 이루어졌다.

AWARD & SELECTION

김혜숙 교수, 한국심리학회 선정 '올해의 석학'



심리학과 김혜숙 교수가 '2016 한국심리학회 석학'으로 선정됐다. 한국심리학회는 지난 8월18일부터 2박3일 동안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진행된 <2016 한 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심리학회는 심리학 분야에서 성취한 학술 업적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올해의 석학으로 선정한다. 올해에는 김혜숙 교수와 손정택 전북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심리학회는 1946년에 발족한 역사는 65년 학회로 1만5000여명의 회원 을 두고 있다. 김혜숙 교수는 1987년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990년부터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EVENT

"AFTER YOU" 프로그램 명사 초청 특강



"AFTER YOU" 프로그램 - 2016 아주 글로벌 캠퍼스' 파견 학생들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이 6월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됐다. 사전 교육은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됐다. 명사 초청 특강은 김동연 총장의 <유쾌한 반전> 강연을 시작으로 ▲정철원 전 국무총리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고문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 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올 여름 'AFTER YOU'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은 학생들에게 가슴 뛰는 삶을 살라며 조언과 격려를 전했다. 정철원 전 국무총리는 ▲본인이 걸어온 길과 ▲공직생활 경험담 을 소개하며 "주변 사람들을 존중, 배려하며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라"고 조언했다.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는 해외 기업들이 보는 한국 인재에 대해 설명하며 글로벌 기업의 문화와 인재상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건넸다.

EVENT

아주통일연구소, 남북 대학생 함께한 '아주 멋진 통일캠프'



아주대 신하 아주통일연구소가 8월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아주 멋진 통일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이다. 아주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아주대 재학생들과 탈북 대학 생 총 44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를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기간 동안 남북의 놀이 문화를 체험해 보는 ▲놀이 한마당 참가자들의 개 성은 물론 서로간의 협동을 통해 통일 한국을 그려보는 ▲통일 모자이크 마케 팅 측면에서 바라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통일 한국 브랜딩 특강 평화적인 대화 방법을 배워보는 ▲비폭력 대화 등 통일과 관련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아주대는 최근 통일부 주관 '201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경기 남부 지역 통일 교육 거점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VENT

공군참모총장,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 만나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6월14일 아주대를 방문해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재학 생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신설된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아주대와 공군 간의 계약학과다. 정 참모총장 일행은 김동연 총장을 만나 환담하고 이후 육공관 제 1회의실에서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운영과 관련된 임제성 학과장의 발표 를 들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은 공군으로부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 받으며 졸업 후 공군 장교로 입관, 7년간의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 무복무를 마친 뒤 군에 남거나 방위 산업체, 국방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정 참모총장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1~2학년 학생 30명과 직접 만나 군 생활과 공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재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직접 준비한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아주대 교수진의 실력과 경험을 신뢰한다"며 "국방디 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이 하루 빨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공군에 합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할일을 할 뿐” 교직원 마이크

“다양한 구성원의 하나로 봐주시구요, 함께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곳에서 서 일하면서 느낀 것 은 아주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너무도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장애학생들은 다른 이들이 본인들을 바라 보는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쓴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같은 학생으로서 편인지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두 팔을 넓게 벌려 포용해줬으면 한다. 장애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아주인들의 따듯한 배려와 관심이 더 중요하다. 타인의 '무관심'이 그들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정 시설이 개 선된다고 해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장애 대학생 지원 담당자 연수에 다녀왔다. 휠 체어를 타고 움직이거나,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앞으로 학교차 원에서도 외부 강사를 초빙해 우리 모두의 인식을 조금씩 개선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 줬으면 한다. 장애 학생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학생들이 있다. 그 학생들이 서로 가가워지는 데 있어 '장애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그

EVENT

SW중심대학사업단, 초중고 학생 교사 대상 교육 진행



아주대학교가 지난 7월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들로 초중고 학생과 중등학교 정보교사, 지역 시민 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주니어 게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사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청소년 소프트웨어 캠프로 구성됐다. 소프트웨어학과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이번 교육 프로그램들은 수월시와 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지역 사회의 초중고교 학생들과 정보 교사들이 참석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아주대학교는 앞으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프트 웨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주니어 게임 소프트 웨어 아카데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9월과 11월에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EVENT

2학기 시작, 교수 워크숍 열려



2016학년도 2학기 전체교수 워크숍이 8월29일 다산관 강당에서 열렸다. 김 동연 총장과 보직교수를 포함해 250여명의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이전과는 다른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1부는 학교 주요 현안을 알리는 시간으로, 2부는 신규 학과 소개와 신진 교수들의 자유발 언데 등이 진행됐고 3부는 참석 교수들 간 교류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장년 퇴임 하는 김동윤 교수에 대한 감사에 전달식으로 시작됐다. 김 동윤 교수는 "아주 가족의 일원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난다"고 말했다. 학교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은 최근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구성원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지형(건축학과) 교수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주제로 발표했고 남양호(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학생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 전략 수립'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조지민(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김영란법' 안내 ▲김지혜 성폭력상담센터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의 교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 등이 이어졌다.

이정선 장애학생지원센터

저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정도랄까.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도와주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들 이야기 한다. 서로에게 한결음씩 다가서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 장애 학생들은 특별 대우를 받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학교 선배, 후배, 동기로 대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도우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조금 이해해 주고 배려해주었으면 한다. 앞서 다녀온 연수에서 강의를 했던 한 교수님은 "나는 수업 중에 절대로 뒤돌아 철반을 본 체로 강의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본인의 수업에 들어오는 청각 장애 학생의 입 모양을 통해 수업을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배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난다면 무관심은 급세 관심으로 바뀔다. 우리가 함께 발전해나가는 아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들이 대면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장애 학생의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한 도우미 및 튜터 운영과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등을 담당하고 있다.

EVENT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인재육성 위한 협약체결



아주대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철도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6월22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연 총장과 이철기 교통·ITS대학원장 등이 참여했고,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김태호 사장, 김병선 인재개발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태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공사는 125km에 달하는 선로와 6500 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세계 10위권의 규모"라며 "이번 협약이 인적자원 육성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총장은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펼치는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교통·ITS대학원 뿐 아니라 전교적 차 원에서 좋은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VENT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행사 참가



지난 5월28일 몽골 현지에서 열린 수원 시민의 숲 조성 행사에 김동연 총장과 공공정책대학원 구성원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수원 시민의 숲' 조성 행사는 몽골의 사막화와 황사를 방지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2011년부터 수원시가 주축이 되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40km 떨어진 에르덴후스 지역에 매년 나무 1만 그루씩을 심어 10년간 10만 그루를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올해에는 몽골 현지에서 5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140여명이 참여해 나무를 심었다. 파견단은 최충한 사단법인 휴먼몽골사 입단이사장을 비롯해 수원시민의 숲, 수원시 공무원 등 80여명과 아주대 참여자 6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부터 이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공공정책대학원은 설립 20주년을 맞 이해 김중식 공공정책대학원장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꾸렸다. 공공정책대학원 소속 교수와 동문, 유승익 사회과학대학장상 사회과학대학 교수 및 학부생이 함께 참여했다.



NEWS >>>

경기 남부 통일교육센터 주최 ‘경기통일포럼’ 이어져



경기 남부 통일교육센터와 아주대학교가 주관한 ‘경기통일포럼’이 이어졌다. 지난 6월30일에는 양창석 (주)선양하나 대표가 ‘독일 통일 교훈과 우리의 통일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양창석 대표는 통일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통일부 주요 직책과 남부회담본부장을 역임했다. 양창석 대표는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 키워야 하며, 통일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16일에는 전병길 (제)통일과 나눔 사무국장이 강연을 맡아 ‘통일한 국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 콘텐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전병길 사무국장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방영된 북한 관련 영화들을 소개하며 스토리텔링을 통한 접근이 우리의 통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경기통일포럼>은 경기 남부 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아주대가 격월로 주최하는 특강 프로그램이다.

파란학기파트너기업 오비맥주에 감사패



김동연 총장 일행이 ‘파란학기제-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의 파트너 기업인 오비맥주를 방문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비맥주는 올 1학기 파란학기의 파트너 기업으로서 발대식과 중간 교류회, 최종 성과 발표회 등 프로그램 전반에 함께 했다. 김동연 총장 일행은 지난 7월1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비맥주를 직접 방문, 김도훈 오비맥주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남을 나눴다. 김 총장과 오비맥주 주요 관계자들은 파란학기제의 경과 및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김 총장은 올 1학기 파트너기업으로 함께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오비맥주 김도훈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3월 아주대와 파란학기제 참가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오비맥주는 발대식, 중간 교류회, 최종 성과 발표회 등 파란학기제와 관련된 행사 전반에 참여했다. 또한 파란학기 우수 활동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파란학기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했다.

유쾌한 반란 기금 기부 AJ가족에 감사패



김동연 총장이 AJ가족 임직원들을 대표해 문덕영 부회장에게 ‘유쾌한 반란 기금’ 기부에 대한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문덕영 부회장을 비롯한 AJ가족 임직원들은 ‘유쾌한 반란’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십시일반 모은 2000만원을 아주대에 기부한 바 있다. 지난 8월23일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동연 총장과 이준철 기획처장 등이 함께 했다. 문덕영 부회장은 기부금 기탁 이의에 “AFTER YOU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멘토로서 함께 하는 등 아주대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문 부회장은 “AFTER YOU 프로그램, 파란학기제 등 아주대학교가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아주대가 기업의 롤을 바꾸는 프로그램들을 새로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AJ가족은 2007년 아주그룹에서 분리돼 종합렌탈, 물류, 유통, 금융, 오토 부문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모그룹과 계열 기업 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다.

경기 남부 4개 대학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시상식



2016 경기남부 4개 대학 프로그래밍 경시대회(SHAKE!) 시상식이 지난 8월8일 아주대 총장실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아주대 INX사업단을 중심으로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ERICA캠퍼스의 컴퓨터 관련학과 학생회와 사회화가 협력해 프로그래밍 분야의 인재육성 및 공학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만들었다. 배아비는 지난해부터 대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본선 대회장과 수상자 부상도 제공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대회에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대상의 영광은 아주대 사명환(소프트웨어학과) 학생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이현진(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우수상은 최승주(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가 받았다. 장려상은 박정훈(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임형진(성균관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계열)학생이, 배아비 특별상은 경기식(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김동연 총장, 최경희 산학부총장 그리고 배아비 박종목이사가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교통·ITS대학원 네오펀스 MOU



아주대 교통·ITS대학원과 (주)네오펀스가 철도전문인력 양성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8월26일 을곡관 제1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아주대 김동연 총장과 이철기 교통ITS대학원장, 윤일수 교수가 참석했고, 네오펀스에서는 정민철 사장과 안홍수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에는 ▲인력·물적 자원 및 학술정보 교류와 교육을 통한 상호 협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활동 및 기업 경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연구 개발 협조 등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네오펀스 임직원들은 교통·ITS대학원 진학 시 교육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광명시 등 3개 기관과 일자리 창출 협약



아주대가 광명시, 경기경영자총협회(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융복합산업협회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은 지난 6월3일 광명시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준승 아주대 대학원장(7일지원센터장)과 양기대 광명시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김형철 한국융복합산업협회 이사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4개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아주대는 파트너 기관 한국융복합산업협회와 함께 광명시 지역에서 인력양성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지속적인 산학관 네트워크를 통해 산학협력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아주대는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신임 교원 임용 아주 가족을 환영합니다

2016년 2학기 신규 임용된 교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이 8월26일 오전 을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임 교원은 총 16명으로 본교 14명, 의료원 2명이다. 수여식에는 김동연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해 신임 교원들을 맞이했다. 신임 교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교>

- ▲ 김주형(화학공학과, 조교수)
- ▲ 김중현(응용화학생명공학과, 조교수)
- ▲ 김진영(건축학과, 조교수)
- ▲ 황원준(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 ▲ 이지은(물리학과, 조교수)
- ▲ 김하영(금융공학과, 조교수)
- ▲ 윤대균(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 ▲ 최재영(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 ▲ 김동현(사이버보안학과, 부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 ▲ 문남식(수학과, 부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 ▲ 임창수(화학과, 조교수/연구중점교수)

- ▲ 이택균(다산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점교수)
- ▲ 오하영(다산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점교수)
- ▲ 구은희(다산학부대학, 조교수/교육중점교수)

<의료원>

- ▲ 김보현(의학과, 조교수)
- ▲ 안정아(간호학과, 조교수)

소학회 세아, '전국 대학생 고전읽기 토론회' 대상



사학과 독서 토론 소학회 세아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제3회 전국 대학생 고전읽기 토론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고전 읽기를 통해 인간의 본질과 세계의 존재에 대하여 성찰하는 탐구적 고전 독해 활동을 독려하고, 교수자-학생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지정된 고전 도서 가운데 2권을 선택하여 토론을 벌였다. 사학과 소속 독서 토론 소학회인 세아는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세아의 재재현(사학14), 김은비(경의14), 신현우(사학16), 양준보(사학14) 학생은 <맹자,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멘토링 -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지도는 사학과 김종식 교수가 맡았다.

대학원생 3팀, 한국광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대학원생들의 논문 3편이 한국광학회가 주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정환성, 이택균, 김숙영 학생이다. 정환성·이택균 학생은 열등인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김숙영 학생은 김성환 교수가 지도 중이다. 정환성 학생이 그라핀 포화 흡수체 기반 고출력(~200 mW) 정상 반산동 모드 잠금 이터븀 전광섬유 레이저라는 논문으로, 이택균 학생은 ‘측면연미 편광유지 광섬유에 전사된 그라핀 포화 흡수체를 이용한 극조단 광섬유 레이저’, 김숙영 학생은 ‘유연성을 지닌 실리콘 나노결정 기반 3차원 광자결정’이라는 논문으로 수상했다. 한국광학회는 1989년 창립한 국내 광학 분야 최대 학회로 매년 학술발표회, 단기강좌,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 아주대는 총 23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배출해 카이스트, 연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소프트웨어학과 권성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우수논문상



소프트웨어학과 권성민 학생(4학년)이 2016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권성민 학생은 이수경(대학원 소프트웨어특성화학과) 학생, 오상윤 교수(소프트웨어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 논문의 제목은 <SSD 타입 저장장치를 포함하는 Hadoop 시스템의 Iterative Processing 처리 성능 분석>이다. 권성민 학생은 소프트웨어학과가 3학년 2학기에 진행되는 <IT 중점교육> 과목과 4학년 1학기에 진행되는 <자기주도연구> 과목을 수강하면서 위의 연구를 진행했다. 두 과목 모두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심화학습을 하는 과목이다. 이에 실제 논문이나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주제로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장기근속 직원 격려 행사 열려



장기근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행사가 7월11일 오전 을곡관 총장실에서 열렸다. 김동연 총장과 최경희 부총장 등 보직교수들이 대상 직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행사가 마련됐다. 10년·20년·30년 장기근속 직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다. 장기근속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30년 근속: 김관기(시설팀)
- ▲20년 근속: 김기문(대학발전팀), 윤영화(구매관제팀), 이은규(교무팀), 정말희(경영대학원 교학팀), 진성호(사회과학대학 교학팀)
- ▲10년 근속: 구자영(다산학부대학 교학팀), 김경호(정보시스템팀), 김점영(총무팀), 송준엽(다산학부대학 교학팀), 유남경(교무팀), 정홍락(학술정보팀)

이달의 부서 선정



시설팀과 대학발전팀이 각각 7월과 8월 ‘이달의 부서’로 선정됐다. 시설팀은 방학 중에 집중되는 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원가분석을 통해 시공비용을 절감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연구마을 기업부설연구소 입주공간 조성사업은 촉박한 일정에도 적시에 공사를 완료해 사업시행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시설팀은 안전제 팀장을 비롯해 이선형, 최창기, 홍영수, 신정철, 오기환, 이기홍, 김시진, 신정수, 김민기, 정영근, 신형섭 직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발전팀은 신설된 융합시스템공학과와 2017학년도 첫 신입생 모집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대학발전팀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기업체, 상공회의소, 산업단지, 특성화고교,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을 방문해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대학발전팀은 기획처 소속으로 김기문 과장과 황원복 계장, 강승배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과체험 진로박람회 성황리에 마무리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학과체험 진로박람회가 8월3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중·고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김경일 입학사정센터장의 진로특강을 시작으로 전향안노, 학과 강의, 학과체험, 11상단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과강의 시간에는 20개 학과 교수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학과에 대한 소개와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과강의에는 기계공학과, 생명과학과, 국방다지텔융합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간호학과, 화학공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심리학과, 경제학과, 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학과, 산업공학과, 약학과, 미디어학과, 금융공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총 20개 학과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부터 국방다지텔융합학과, 약학과, 금융공학과 등 심화학과가 새롭게 포함돼 참가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Thank donor

선후배 동문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힘내세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주대 동문입니다.”

김용태 동문
심리학과 90학번
미래에셋대우 소비자보호팀 차장

김용태 동문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발전기금과
1-1-1 캠페인 장학금을
매달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기부액은 총 800만원 상당이다.
김 동문은 그림에도 국제 구호 기구 컴패션
(Compassion International)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도 후원하고 있다.

AJOU AUTUMN

CREDITS

PUBLISHER president 김동연

CHIEF EDITOR brand strategy dept. moc. 남경호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 visiting professor

EDITORS brand strategy dept. 이슬
심경석

PHOTOGRAPHER brand strategy dept. 정우준
digital media senior 강민석

ART brand strategy dept. 권지영
kkpd and partners co., ltd. 한혜철
심민경
윤성우

PROCEEDING ASST. ajou univ. 임정연
digital media senior

PRINT MANAGER alaska 장준우
지환섭

SUPERVISOR brand strategy dept. 박송하

Ajou Quarterly Magazine 2016 Autumn Renewal Vol.15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Copyright © 2016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JOUINSIGHT〉 이 간행물 내용 중 상의 허복제 및 전재를 환영합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 031-219-7114